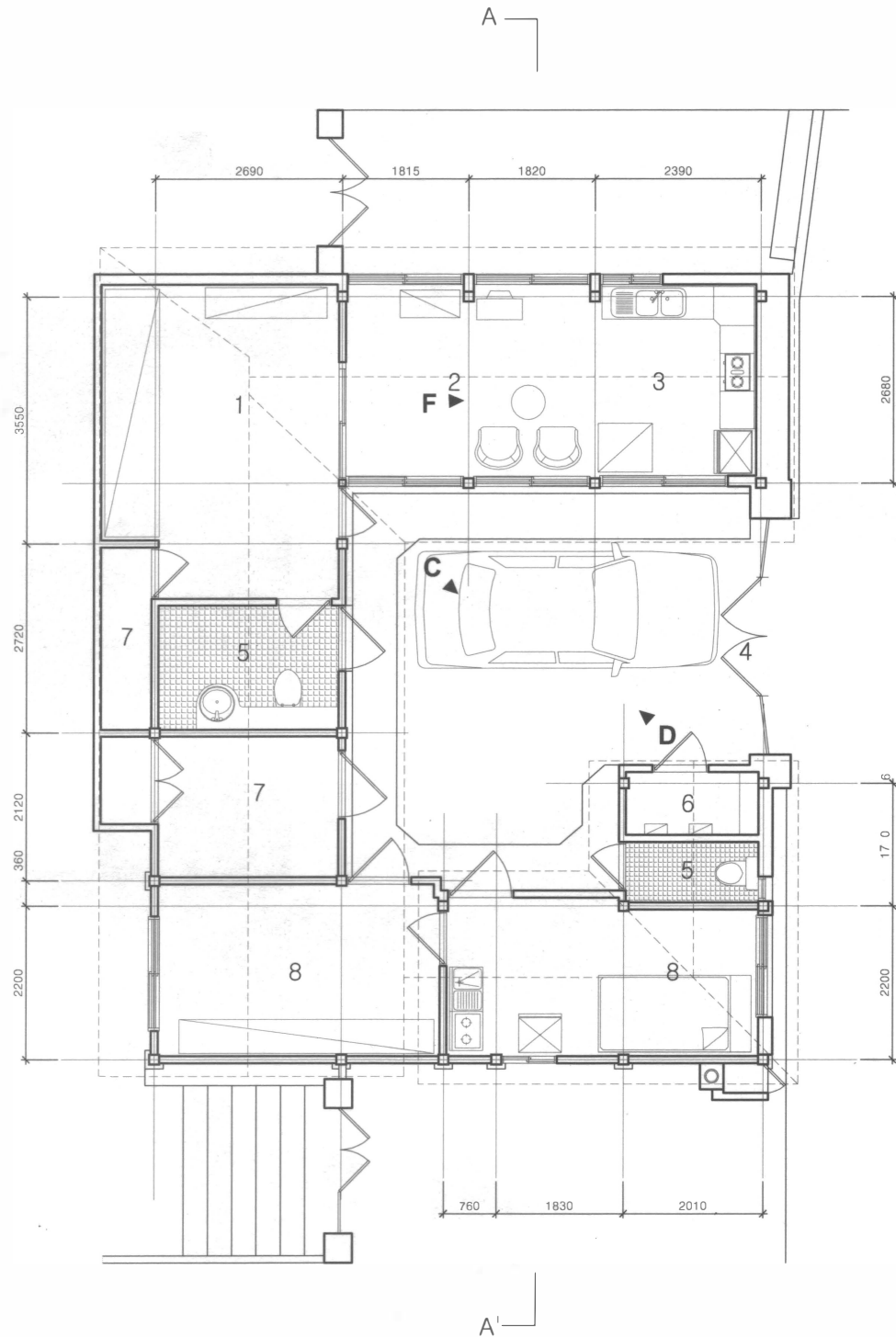


건넌방이 있던 자리에 부엌을
 입식으로 꾸며서 대청과 한
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. 부엌
 이 있던 자리에 만든 화장실은
 안방과 마당에서 직접 들어갈
 수 있다. 거실과 부엌의 북쪽
 으로 처마선까지 확장하였다.
 안채와 바깥채 사이를 막아서
 방을 늘였다. 바깥채는 세를
 놓았다. 남쪽입면에서 목조가
 구의 모습이 잘 드러나있다.



- 1. 안 방
- 2. 대 청
- 3. 부 엷
- 4. 현 관
- 5. 화 장 실
- 6. 보 일 러 실
- 7. 창 고
- 8. 방